

1) 토성의 동향

『친증동국여지승람』(권40, 순천도호부의 성씨조와 인물조)을 참고하면 순천을 본관으로 하는 세 성씨, 즉 김씨·박씨·장씨가 조선 전기의 주요 토성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순천 김씨

순천 김씨의 시조 김충(金攄)은 후백제 인물로 견훤에 종사하였으며, 고려 때 부(府)의 성황신으로 모셔진 인물이다. 그가 성황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이 토호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성씨의 유래는 1453년 단종 때의 계유정란으로 그 기록이 없어져 소목(昭穆)이 불분명해졌다. 현재 이들의 계보는 고려 때 전 객시령(典客寺令)을 지낸 김윤인(金允仁)을 1세로 한다. 2세 김동(金洞)은 밀직사사 상호군(上護軍)을 지냈고, 3세 유정(惟精)은 정주목사를 지낸 인물이다.

『순천김씨세보(順天金氏世譜)』에 따르면 이 성씨는 조선 초기 4대 김승주(金承雱 : 1354~1424)와 그 아들 때부터 번창하였다. 김승주는 유정의 둘째 아들로 무예로써 병조판서에 이르렀고,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양경(襄景)의 시호를 받았다. 평양은 순천의 옛 이름이다. 그의 아들은 유운(有濫)·유량(有良)·유공(有恭)·유검(有儉)·유양(有讓) 5명인데, 그 중 유운은 안동 구담촌(九潭村)에 거했고 묘는 예천에 있다. 유운의 아들은 형석(亨石)이고, 형석의 아들은 약평(若枿)인데, 약평의 사위는 효종비 인선왕후의 부친이자, 계곡(溪谷) 장유(張維)의 고조인 장충보(張忠輔)이다.

김승주의 셋째 아들 유공은 이조정랑, 그의 아들 안길(安吉)은 구례현감, 손자 지해(之海)는 호조참의, 증손 효우(孝友)는 담양도호부사를 각각 지냈다. 효우는 계유정란이 일어나자 화를 피해 아우 효손(孝孫)과 더불어 산림에 묻혔다. 다섯째 아들 유양은 가선대부(嘉善大夫) 형조참판·승정원승지로 순평군(順平君)에 봉해졌으며 충정(忠貞)의 시호를 얻었다. 그의 아들 사창(嗣昌)은 사헌부감찰을 지냈고, 손자 이권(以權)은 충좌위중부사직(忠佐衛中部司直)을 지냈다.

넷째 유검은 승정원승지, 아들 극기(克己)와 율기(律己)는 각각 원주목사와 부사를 지냈다. 5세 태영(台泳)은 문과로 지평을, 6세 수(陞)는 도총제(都摠制)를 지냈다. 그의 아들은 종한(宗漢)과 종서(宗瑞)인데, 종한은 이조판서를 지냈고 단종 때 충신인 김종서(1390~1453)계와 달리 이후에도 관宦(官宦)을 이어왔다. 1542년에 전주부윤을 지내고 관이 병조참판에 이른 희열(希說), 승주의 5대손으로 관이 지중추(知中樞)에 이르고 평양군에 봉해진 순고(舜皐), 순고의 손자로 관이 홍문관교리에 이른 광엽(光燁) 등이 있다.

이들 성씨의 득세는 임진왜란 후까지 이어졌다. 무관인 김여물(金汝物 : 1548~1592)은 찰방훈(燠)의 아들로 순천부사를 지냈으며, 1591년 의주목사로 있을 때 정철의 서인당(西人黨)으로 몰려 투옥되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의 명으로 신립(申砮 : 1546~1592)과 함께 충주 방어에 나섰다가 전사하였다.

김류(金鑾 : 1571~1648)는 여물의 아들로 문신이며,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로 송익필(宋翼弼)의 문인이다. 서인으로 대북(大北)정권을 타도하여(인조반정)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승평부원군에 봉해지고 병조판서와 대제학이 되었다. 정묘호란 때는 인조를 강화에 호송하였고, 환도한 뒤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해인 1636년에 영의정에 오르고, 난이 일어나자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다. 환도 후 화의내용에 대한 양사(兩司)의 논핵(論劾)으로 삭직(削職)되었으나 1644년 심기원(沈器遠)의 모역(謀逆)

을 평정한 공으로 다시 영의정에 오르면서 영국공신(寧國功臣) 1등에 순천부원군이 되었다.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문집으로는 북저집(北渚集)이 있다. 여기에는 「차기암운(次崎庵韻)」, 「견기옹서(見崎翁書)」 등 송강 정철의 아들인 기암(崎庵) 정홍명(鄭弘溟 : 1592~1650)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글들이 실려 있다. 『기암집(崎庵集)』에도 「파산도중차빈상김류운(坡山道中次儂相金鑿韻)」 권3 등이 있다.

심열(沈悅 : 1569~1646)은 청송인으로 부사 충겸(忠謙)의 아들인데, 예겸(禮謙)에게 양자로 갔으며, 인조반정으로 호조판서가 된 후 영의정에, 1644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른 자다. 그가 쓴 문집 『남파상공집(南坡相公集)』 권4,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신김(臣金)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신심(臣沈) 연명차(聯名劄)」를 보면 그와 김류 두 사람 모두 연로하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죄를 내려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상과 같이 순천 김씨는 단종 때의 단절 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중앙관직에 진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당시 및 그 이후 순천지역에서의 활동상황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② 순천 박씨

순천 박씨는 고려 개국공신 박영규(朴英規)를 1세로 하나, 고려 때 장군으로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에 봉해진 박난봉(朴蘭鳳)을 1세로 하기도 한다. 박난봉은 인제산에서 성을 쌓고 왜구의 침입을 막았다고 하며, 죽은 후 인제산신으로 모셔진 인물이다.

『친증승평지』 인물조에 따르면 5세 박천상(朴天祥)은 무과 출신으로 무예(武藝)로 공민왕을 모셨고 평양부원군에 봉해졌다. 그러나 그의 묘는 경기도 장단 현성동(賢成洞)에 있으며, 평양군(平陽君)에 봉해진 그의 아들 가흥(可興)의 묘는 경기도 양주(陽州)에 있다.(『중간순천박씨세보(重刊順天朴氏世譜)』) 7세 석명(錫命)은 천상의 손자로 1370년에 태어났다. 138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문예로 태종 때 현달하였는데 주로 한양의 향교동에서 살았다. 좌명공신(佐命功臣 : 3등급)으로 평양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문숙(文肅)의 시호를 받았다. 부인은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매운당(梅雲堂) 이조년(李兆年 : 1269~1343)의 손녀이다.

박영규의 9세손 중선(仲善 : 1435~1481)은 무과 출신으로 이조판서까지 지냈으며 1467년 이시애의 난 때 공을 세워 적개좌리공신이 되었으며 평양군에 봉해지고 소양(昭襄)의 시호를 받았다. 그의 아들 원종(元宗 : 1467~1532)도 무과 출신으로 성희안(成希顔)·유순정(柳順汀)과 함께 결책정국공신(決策靖國功臣)이 되었고, 승정원승지·이조참의를 지냈으며 영의정에 이르렀다.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지고 무열(武烈)의 시호를 받았다. 중앙무대에서 활약한 이들의 묘 역시 중선의 경우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원종은 양주 도산(陶山)에 있다.

한석당(閑碩堂) 박중림(朴仲林 : ?~1456)은 문과 출신으로 1455년에 이조판서가 된 자이다. 세종 때 집현전에 들어갔으며, 1456년에 단종복위와 관련하여 아들 평년과 함께 죽게 되었다. 이들이 단종 때 위기를 맞이한 것은 순천 김씨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순천 박씨는 순천 김씨보다 일찍, 즉 박석명 다음 대인 15세기 중엽부터 각지로 분파되었으며 순천에 잔류한 파도 임진왜란 이후 타지로 이거해간 것 같다.

조선 전기 순천 박씨의 계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천 박씨 세계도

앞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의정을 지낸 원종은 그의 누이를 들썩이나 왕실로 보낸 것이다. 그 중 월산대군의 부인은 연산군 때 승평부대부인(昇平府大夫人)의 칭호를 받았고 각별한 보호를 받았다.¹⁾ 『똥중실록』 기사에서는 제안대군의 부인 박씨를 순천의 우족(右族), 즉 유력한 거족으로 소개하고 있다.²⁾

③ 순천 장씨

순천 장씨는 앞의 두 성씨와 달리 비교적 단기간, 즉 11세 천로(天老 : 1145~1223)부터 18세 사검(思儉 : 1321~1392)까지 약 170년간 7~8대를 순천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순천에서는 큰 기반을 닦지 못한 채 쇠퇴한 씨족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북 의성 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이들은 그곳으로 입향한 사검 때부터 세거해왔다.

『순천장씨족보(順天張氏族譜)』에 따르면 11세 천로는 중시서랑(中侍書郎)으로 순천군에 봉해졌으며 이후 순천 장씨의 시조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묘는 개성 송악에 위치한다. 12세 중광(仲光 : 1173~1242)부터 밀직부사를 지낸 16세 홍(弘)에 이르기까지 모두 묘는 개성 오룡산에 있다. 홍의 두 아들 상지(相之)와 보지(輔之) 중 보지(1304~?)는 고려가 망한 후 태조 때 세 번 부름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삭발한 후 미달산(迷達山)에 들어가 호를 달산이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사검(1321~1392)은 사군소감(司軍少監)으로 성발(成潑)의 딸을 처로 맞아들였고 의성(義城) 원흥리(元興里)로 이전하였는데, 이후 순천 장씨들은 그곳에 세거하였다.

이상의 세 성씨들은 순천의 토성으로 일컬어지는 세력으로 그들의 지역적 기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으나 중앙에 진출한 자들은 대부분 낙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조선 전기 순천에서 그들의 씨족적·지역적 기반은 그리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현산군일기』 권62, 연산군 12년 5월 丁巳조 ; 『현산군일기』 권63, 연산군 12년 7월 庚辰조.

2) 『똥중실록』 권21, 중종 10년 3월 癸亥조 ; 『똥중실록』 권21, 중종 10년 3월 庚辰조.